

노력의 온도

Start-Up 1주차

「경계」 편

M E M O

1강

영점 표준 - 평가원의 방식

노력의 온도

▶ 그동안 평가원은 ‘경제’ 지문을 이렇게 출제해 왔다.

학년도	월(6/9/수능)	제목·주제	비고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경제학에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중차분법)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브레턴우즈 체제와 트리핀 딜레마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광고의 기능 (나) 다양한 차원에서 광고의 영향	(가), (나)형 지문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디지털세와 ICT 지식 재산 보호 정도에 대한 분석	법+경제 융합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IS 비율 규제로 살펴보는 국제적 기준의 규범성	법+경제 융합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 - 미시/거시 건전성 정책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채권과 CDS 프리미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부의 정책 수단 -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	행정+경제 융합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 고지 의무	법+경제 융합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의 배경과 그 유형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인센티브 계약의 두 가지 방식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B형	간접광고의 이해	
2014학년도	예비 시행 B형	자본주의의 흐름과 중간층의 변화양상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적연금의 실시목적과 운영방식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격 결정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권가격의 결정요인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환율의 변동과 경상수지의 관계 (J커브 현상)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유명인 모델의 광고효과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업 결합의 양상과 심사 과정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경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조세 전가의 이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공사업의 사회적 할인율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금융의 사회적 역할, 소액 신용대출의 사례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위치적 군비 경쟁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옵션의 개념과 특징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경제학과 심리학의 상관관계 - 케인스와 카네만	

① 나무보다는 숲, 미시경제보다는 거시경제.

미시경제학: 개별 경제 주체의 관점에서 경제행위를 분석하고 경제문제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시경제학: 나라 경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민 소득, 물가, 고용, 이자율, 환율과 같은 경제 변수 간의 상호관계나 경제 정책의 영향 등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원이 그동안 미시경제 분야와 관련된 지문(마케팅, 인센티브 계약, 규모의 경제 등...)을 아예 출제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 비중을 따져본다면 거시경제 분야 관련 지문을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평가원에서 미시경제 분야 관련 지문을 기피해 왔던 것은 아무래도 미시경제학이 경제 주체들의 미시적인 행동을 분석하여 사회적 경제 현상을 해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미시경제 분야의 내용을 지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닌 경제학 탐구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시험이 되어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특정 경제 현상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세세하게 분석하고 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제학 개념들에 관한 내용을 깊이 있게 언급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말이다.

따라서 본인이 경제 관련 지문만 보면 얼어 버린다거나, 기본적인 경제 관련 어휘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은 기출을 보든, EBS 연계 교재 내 수록 지문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든, 미시경제 관련 분야의 내용을 먼저 건드리기보다는, 거시경제 관련 내용을 먼저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부하면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정리를 해 두도록 하자. 그 편이 효율적일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시경제 분야 관련 지문을 '유기'하라는 건 아니다!

2024학년도 기출부터 독서 경향이 바뀌었다. EBS 연계 교재의 활용 정도가 이전 대비 훨씬 높아졌고, 이전 기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비교적 단순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과는 다르게, 앞으로는 미시경제 분야 관련 지문을 평가원에서 자주 출제할 수 있을 것이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광고 지문이라든지,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공포 소구 지문(엄밀하게는 사회학 지문이지만 마케팅 관련 소재라는 점에서 언급해 봤다)을 고려해 봐도 뭔가 예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예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쉽게 떨칠 수가 없다.

옆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 근래 평가원에서 경제 파트 지문을 잘 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차마 여기에 쓸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등등으로 인해(읍읍), **경제 지문이 모두의 예상에서 사라졌을 때쯤, 한 번 '큰 거 온다' 느낌으로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말이 길었지만, 결국 수능 전날이 되었을 때는 공부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평가원에서 거시경제 관련 지문을 워낙 많이 출제했으니, 경제 제재에 유독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은 거시경제 분야를 먼저 공부하고, 그 이후부터 미시경제 분야에 대한 지문도 공부하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에 대해 대비를 해두는 것이 효율적일 게다.

노력의 온도

② 문제가 생길 때, 경제가 시작된다. 이때 중심이 되는 개념 설명은 당연하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 (후략)

[COMMENT]

이 글은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 즉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모순을 지적한 트리핀 딜레마를 소개하고 있다.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달러화의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과잉 공급된 달러화 신뢰도가 저하되어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된다는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 즉 ‘트리핀 딜레마와 관련한 미국의 문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화의 평가 절하와 타국 통화의 평가 절상이 제시되었으나, 고정 환율제에서는 달러화 평가 절하가 불가능했고, 주요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타국 통화에 대한 평가 절상도 불가능했다. 결국 문제가 가진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닉슨 쇼크가 해결책이 된 셈이다.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 (후략)

[COMMENT]

이 글에서는 중앙은행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자산 가격 버블과, 대형화된 금융 회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 시스템 붕괴라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문제점’이 나열되어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 안정은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은 통화 정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금융감독 정책에 있어 미시 건전성뿐만 아니라 거시 건전성까지 고려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었고,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과의 상호 보완 또한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접근 방식과 다른 ‘새로운 해결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왑(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COMMENT]

이 글은 채권의 CDS 프리미엄을 설명하기 위해 쓰인 글이다. 필자는 이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왑(CDS)’의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경제는 ‘개념’과 ‘관계’다!

③ 평가원은 가끔 불친절하다. 기본적인 경제 지식에 대한 이해를 요구할 수 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COMMENT]

환율의 상승과 하락이 화폐가치와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 미리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면,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이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파악하기는커녕, '평가 절하'와 '평가 절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COMMENT]

이자율과 통화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부연해 주지 않았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중앙은행의 채권 매매가 금융 시장의 이자율에 왜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이 정도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노력의 온도

④ 연쇄적 인과 관계, 변수 간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해가 안 되면 처리라도 해라. 식은 써라.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COMMENT] - 이해하거나, 손을 쓰거나!

광고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선순환 :

소비자 욕구↑ → 유행 주기↓ → 소비↑ → 생산 활동↑ → 고용, 투자↑ → 구매자 소득↑ → 경제 전반 소득 수준↑ → 소비 ↑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COMMENT] - 이해하거나, 손을 쓰거나!

경기 과열 시의 통화 정책 : 중앙은행 정책 금리↑ → 시장 금리↑ → 대출↓, 신용 공급↓ → 수요↓ → 물가 안정, 경기 진정

경기 침체 시의 통화 정책 : 반대의 과정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COMMENT] - 이해하거나, 손을 쓰거나!

• 단기에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 국내 통화량↑ → 실질 통화량(통화량/물가)↑ → 시장 금리↓ → 기대 수익률↓ →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 신규 해외 자금 유입 위축 → 자국 통화 가치↓ → 환율↑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COMMENT] - 내용을 이해하거나, 식이라도 이해하거나.

- BIS 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 8(%)
- 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단기후순위 채무
- 위험가중자산 = ∑(보유 자산 × 각 자산의 위험 가중치)
- 위험 가중치 ∝ 신용 위험 ↑
- 위험 가중치 ∝ 금융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 ↑
- 위험 가중자산 = 신용 위험 + 시장 위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COMMENT] - 식을 써라...

-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 = 사고 발생 확률 × 보험금
- 보험료율 = 보험료 / 보험금
 - If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 →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
 - If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 →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
- 공정한 보험의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

노력의 온도

⑤ 그래프, 오히려 좋아. 개형 추론만 하면 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Q.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 b, c는 윗글의 ㉠~㉢과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다음 그래프들은 [가]에서 국내 통화량이 t 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된 경우 예상되는 ㉠~㉢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단, t 시점 근처에서 그래프의 형태는 개략적으로 표현하였으며, t 시점 이전에는 모든 경제 변수들의 값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고 가정한다. 장기 균형으로 수렴되는 기간은 변수마다 상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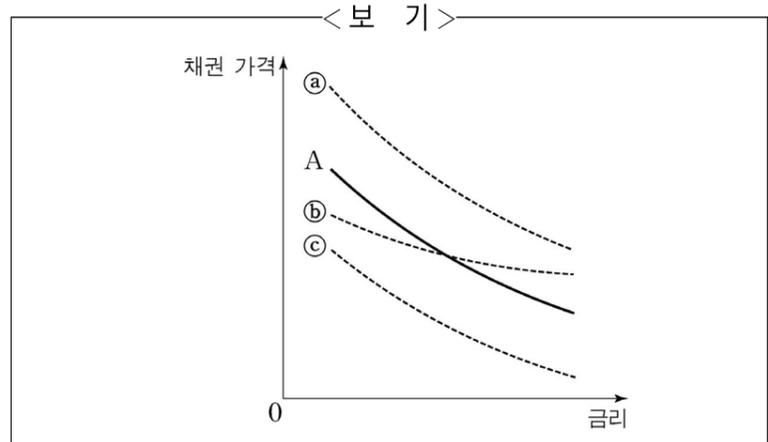
[문제 풀라고 제시해 놓은 것 아님!]
[느낌만 보세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Q. <보기>의 A는 어떤 채권의 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윗글의 ㉠과 ㉡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를 바르게 예측한 것은?



[문제 풀라고 제시해 놓은 것 아님!]
[느낌만 보세요!]

2강

시뮬레이션 ①

-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

노력의 온도

▶ 들어가기 전에 - 개념 정리 & 읽기 자료

경제활동은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소비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은 소득, 재산 등과 같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여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을 경제용어로 '희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공기나 물을 희소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재(free goods)로 구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맑은 공기나 오염되지 않은 물조차 더 이상 공짜로 가질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양질의 생수는 일반 청량음료 수준의 가격을 치르고 사 먹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었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힘들게 돈과 시간을 들여 휴양림을 찾아가는 것이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문제는 이렇게 이용 가능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즉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데에서 경제문제는 출발합니다. 경제문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또 생산된 재화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를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략)

앞에서 우리는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에 덧붙여 편익과 비용의 비교를 '한계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선택에 따라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비교하여, 즉 한계적으로 생각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에 따르는 추가적인 행복과 추가적인 희생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 사고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인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이미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효용을 가장 크게 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행동이나 이윤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행동에서 이 한계의 원칙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 이 개념이 직접적으로 지문의 소재로 다루어질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지문에서 다루어지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 현상-경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모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해 나가려는 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정도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더불어, 순편익, 기회비용, 한계효용, 한계비용, 매몰비용 정도의 개념은, 상식으로 좀 알고 있자.

- **비용:** 어떤 일을 하는 데 지불되는 돈, 시간 자원을 의미한다.
- **편익:** 선택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나 만족감을 말한다. 이윤, 효용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 **순편익:** 편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합리적인 선택이란 순편익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의미한다.
- **기회비용:** 무엇을 선택하려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아쉬운 것의 가치를 말함. 합리적 선택이란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의미한다.
- **한계효용:**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효용. 재화나 용역의 생산량 혹은 소비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누리게 되는 효용.
- **한계비용:** 그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재화나 용역의 생산량 혹은 소비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
- **매몰비용:** 이미 지불되어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에 따른 편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되 이미 지출된 매몰비용은 무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임.

+)'한계'란 영어의 Marginal(추가)를 번역한 단어로, 기회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때마다 순편익을 다시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수요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일정한 가격을 치르고 사려고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 공급은 생산자가 어떤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 수요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을 최대화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 상품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및 기호 등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은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생산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결과이며 상품 가격과 생산비용 등의 움직임에 따라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균형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균형가격에서는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과 판매자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이 일치합니다. 달리 말하면 시장에서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합니다. 물론 개인이나 개별 기업이 시장 전체의 수요 변동을 현실에서 관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명절 때 선물을 사려고 늘어난 손님의 줄을 보거나 판매기업의 재고 수준 변화를 보면 시장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은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 동시에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분석 수단입니다.

(중략)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의 역할을 하여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생각해 보면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하거나 통제하고 지시하는 특별한 조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특정 상품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개별 기업은 어떠한 원리로 생산량을 결정할까요? 자기 회사의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요량 설문조사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의 역할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통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폰을 예로 들어봅시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 휴대폰의 원가에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델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델의 가격이 타 모델 가격보다 높은 것은 바로 그 제품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는 신호이며 제조업체는 이러한 신호에 따라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생산된 제품이 그것을 가장 원하는 경제주체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와 가격이 오르면 일반 사람들은 사과 소비를 줄이고 그 대신 값이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배와 같은 다른 과일을 더 소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올라도 사과와 같이 과일을 소비해야만 행복감을 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격은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히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또 생산된 재화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를 경제문제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해결해 줍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이러한 시장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가격기구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능은 시장참가자의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시장에서는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쟁으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어느 한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동일한 상품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싸게 공급한다면 많은 고객들이 그 기업으로 몰려갑니다. 이 경우 다른 기업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자신의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같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질의 제품을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만 시장에 남게 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퇴출되어 자신이 비교우위가 있는 다른 사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경제는 제품을 가장 싸게 생산되도록 하여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국은행,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시장가격의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은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그렇고, 경제 지문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식으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 두도록 하자.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3~45],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35~37]에서의 그래프 문제를 풀어 본다면,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더불어, 탄력성, 잉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정리해 놓는 편이 좋을 것이다. EBS 연계 교재에 자주 등장한다.

- **탄력성:** 충격에 반응하는 정도. 어떤 종류의 충격이 왔느냐에 따라 소득탄력성, 가격탄력성, 교차탄력성이라고 하고, 반응하는 대상에 따라 수요 또는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말을 붙여 사용한다. 가령 소득이 늘었을 때 수요의 반응 정도를 나타내면, 이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 변동에 대한 수요 또는 공급량의 변동이 크다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변동이 적다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 **잉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교환을 통해 얻는 이득. 소비자 잉여의 경우,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소비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의 차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산자잉여의 경우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꼭 얻어야겠다고 생각한 수입과 그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실제 수입과의 차액을 의미한다.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 의미이다.)

노력의 온도

시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욕구와 목표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시장이나 부산 자갈치시장에 가보면 누구나 그곳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이 매우 무질서해 보이고 번잡스럽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러한 경제활동이 누군가의 지시나 강요를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질서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상품들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절되는 질서, 그리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서로 다른 이해가 적당히 절충되는 조화가 때로는 신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질서와 조화를 연출하는 그 무엇인가가 시장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아담 스미스(A. Smith)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시장경제에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가격기구를 뜻합니다.

그러나 시장여건의 불완전성이나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합니다.

시장실패는 불완전한 경쟁,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일어납니다. 먼저 시장이 독점이나 과점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불완전한 경쟁 상태에 있게 되면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독과점시장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상품의 가격과 수량을 마음대로 정하기 쉽습니다. 어느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그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가능하면 높은 가격에 적은 공급량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시장을 몇 개의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과점시장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담합을 하면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과점시장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할 때에 비해 상품의 가격은 높아지는 반면 공급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도 독과점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도 시장실패를 야기합니다.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외부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외부효과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소음,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 등이 부정적 외부효과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첨단기술 개발, 꽃길 가꾸기 등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개인이나 기업은 굳이 외부효과를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다주는 개인이나 기업도 굳이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낼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시장기구에 전적으로 맡겨 놓을 경우 부정적 외부효과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긍정적 외부효과는 적정 양보다 적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공공재의 존재 역시 시장실패를 초래합니다.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먼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사용재(私用財)와 달리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특정인이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기 어렵습니다. 국방, 치안, 외교, 소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공재의 특성은 무임승차자 문제(free-rider problem)를 일으킵니다. 무임승차자 문제란 사람들이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혜택을 얻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려는 데서 생기는 문제를 말합니다. 공공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생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재의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도 일단 생산되면 사람들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기능에 맡겨 놓을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공공재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공공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되어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도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두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더 좋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등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게 되면 시장 거래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 시장주의자들은 개별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에 따라 자원 및 소득의 분배를 시장에 맡겨 두더라도 효율적으로 그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원 배분 문제가 전적으로 시장 자율 기구인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져 있더라도 효율적 자원 배분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다.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하는 것이다.

→ 평가원이 사랑하는 파트 중 하나이다. 실제로 관련 내용이 많이 출제되었고, 아직도 출제할 만한 것들이 이 파트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6~39]처럼 시장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전제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며 경제사(經濟史)적인 내용을 다룬다든지,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22],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3~45], 2010학년도 수능 [20~23], 2012학년도 수능 [29~30]처럼 시장실패의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관련 내용을 지문 속에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보의 비대칭 관련 내용은 기출에서는 크게 다루어진 적이 없으나 학력평가나 리트릿 같은 외부 시험들에서는 몇 번 다루어진 적이 있는 내용들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추가로 읽어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일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첫째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규칙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합니다.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정할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담합과 같은 공동행위를 단속할 뿐만 아니라 기업 간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기본법」 등을 만들어 시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같은 기구를 두어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는 오염물질 허용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합니다. 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 맡길 경우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한 생산이 어려운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또는 공기업을 통하여 생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써서 물가안정과 고용증대를 위해 노력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가운데 다른 하나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가 바람직하다면 시장경제는 공정한 분배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결과인 소득을 시장원리에 의해 분배되도록 놓아둘 경우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소득 불균형이 커질 수 있으며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들은 자기능력만으로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소득 격차의 확대와 이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실업·질병·사고·은퇴 등으로 인한 소득의 갑작스런 변동은 사회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물론 사회 활력이 낮아지게 되고, 나이가 범좌율이 높아지는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분배와 관련하여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략)

그러나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역시 완전하지 못합니다. 정부의 적절치 못한 대응이나 지나친 개입은 시장실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에 빗대어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실패는 왜 발생할까요? 정부는 대부분의 업무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민간기업처럼 경쟁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업도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공공재 생산비용을 자발적으로 낮출 유인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민간기업처럼 망할 염려가 없으며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인제도 (incentive system)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소홀해지고 조직이 방만해지기 쉬워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민간기업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실패는 상당부분 이러한 정부 부문의 속성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 시장실패와 같은 문제들은 자유로운 사익 추구를 대전제로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오작동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경제 주체들에게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공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공익의 수호자를 자처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규제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장실패와 같이 자원과 소득의 분배를 시장에 마냥 맡겨두어 오히려 이들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시장실패와 관련된 지문에서도 정부의 개입과 관련된 내용은 쌍둥이처럼 제시되는 경향이 있으니(주로 시장실패는 문제 상황으로, 정부의 개입은 해결 방안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겠지?), 이 또한 미리 염두에 두고 지문에 접근하면 보다 수월하게 지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장만 실패하리라는 법은 없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이를 '정부실패'(Government)라고 한다. 정부실패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 정부실패와 관련된 지문은 EBS나 학력평가에서는 출제될 수가 있겠지만, 여러 이유에 의해 평가원 주관 시험에서는 출제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고등학생 수준에 맞게 출제하려니 너무 쉬워지는 경향이 있고, 조금 구체적인 소재에 관해 출제를 하려면 너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싶다(정치적 이유가 가장 클... 읊음!!). 뭐가 됐든 일단 알아 두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니까, 그냥 한 번 눈에 익혀 두기만 하도록 하자.

노력의 온도

→ 다음 개념들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 **생산물:** 생산물은 상품, 즉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소비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생산물 시장'이라고 한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소비하기 위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인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계가 수요자, 기업이 공급자가 된다.
- **생산 요소:** 생산 요소는 생산에 필요한 토지, 노동, 자본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산에 필요한 토지, 노동, 자본 따위가 거래되는 시장을 '생산요소시장'이라고 한다. 노동력이 거래되는 생산요소시장에서는 생산물 시장에서의와 다르게, 기업이 수요자가 되고, 가계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급자가 된다.
- **규모의 경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물당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 단가가 높아질 것 같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때, 이에 대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공학에서는 '0.6 규칙'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규칙은 시설용량을 K배 증가시키려고 할 때 이에 드는 비용이 $K^{0.6}$ 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돗물의 생산능력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원래 비용의 두 배가 아니라 약 1.52배가 된다는 것이고, 나아가 생산능력을 네 배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약 2.3배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수돗물 1톤당의 생산 단가가 점차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범위의 경제:** 생산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생산물당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예를 들어 승용차와 트럭을 각각 하나의 기업이 생산할 때 승용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승용차를 5,000대 생산하는 데에 500억 원의 비용이 들고, 다른 기업은 트럭을 2,000대 생산하는 데 300억 원이 든다고 해 보자. 이때는 총비용이 800억 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중 어느 한 기업이 승용차 5,000대와 트럭 2,000대를 동시에 생산한다고 쳐 보자. 이때 700억 원의 총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하나씩의 기업이 각각의 생산품을 생산할 때 보다 한 기업이 두 상품을 동시에 생산할 때 비용면에서 유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 기업이 여러 상품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비용상의 이점이 생길 때, 우리는 이에 대해 범위의 경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범위의 경제는 상품의 성격이 유사한 결합생산물의 경우에 잘 나타난다. 이러한 상품의 예시에는 구두와 핸드백, 쇠고기와 소가죽 같은 상품들이 있는데, 이는 그 성격상 같은 기업에 의해 함께 생산되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결합생산물들이라서 그렇다. 또한, 생산시설이나 유통망을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위의 경제는 생길 수 있다.
- **재화, 용역(=서비스)의 유형**
 - 기준 ① - 경합성(Rivalry)가 있는가? 즉, 어떤 사람이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영향을 받는가?
 - 기준 ② - 배제성(Excludability)이 있는가? 즉 어떤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이러한 기준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배제성	
		O	X
경 합 성	O	사용재	공유자원
		아이스크림, 옷	바닷속 물고기, 혼잡한 시민공원,
	X	자연독점	공공재
		전기, 유선방송	국방, 치안, 외교, 화재경보

한 나라의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으며, 다시 그 소득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국민경제의 순환이라고 한다. 경제주체는 다양하지만 크게 가계, 기업, 정부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하는 활동을 한다. 재화는 의복, 식료품, 주택 등 물질적 형태를 가진 상품이며, 서비스는 교육, 문화, 관광 등과 같이 형태가 없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행위이다. 서비스에는 도소매, 운수, 통신 등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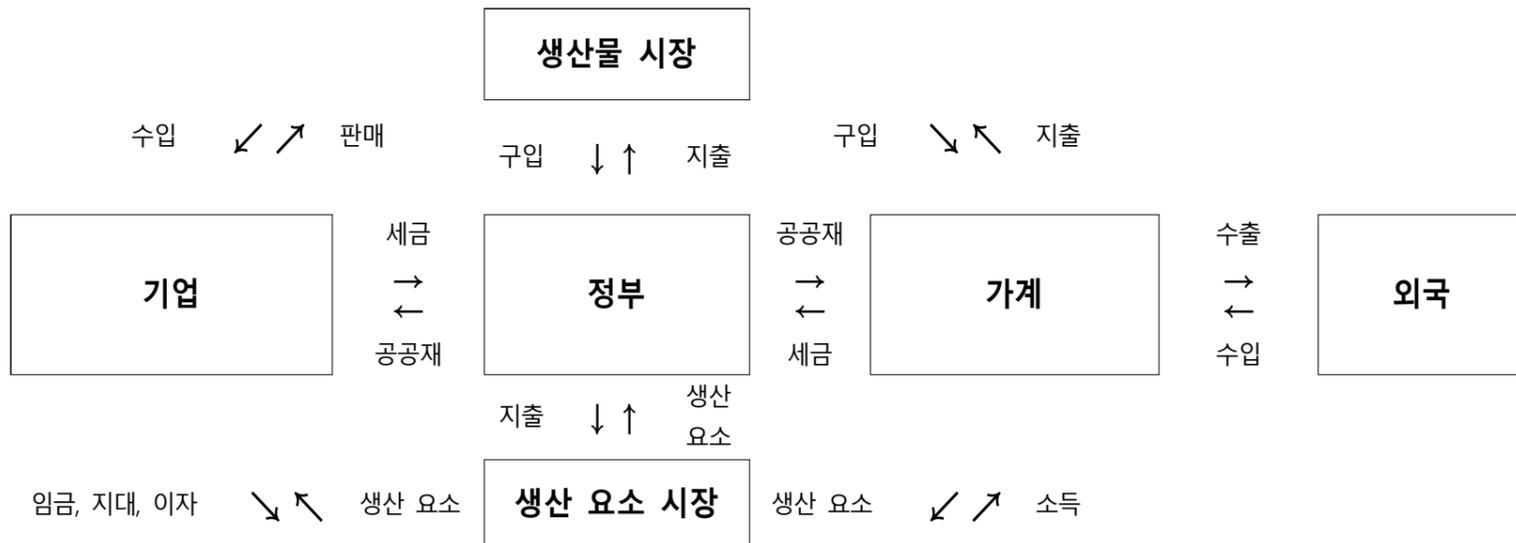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된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 설비투자 등 혁신적인 활동을 하고, 결국 이러한 활동이 경제성장을 이끌게 된다. 특히 장기성장은 기업의 혁신활동에 의해 주도되므로 기업의 역할은 국민경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다가오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이 중요하다.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필요하다.

이를 투입하기 위해 기업은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가계에 배분하는데, 근로자에게는 임금, 급여 등의 형태로 배분하고, 자본가에게는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의 형태로 배분한다. 또한 법인세 등의 형태로 정부에 납부하기도 한다. 기업으로부터 임금이나 급여를 받은 가계는 소득세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정부에 낸다. 각종 세금의 형태로 정부에 이전된 자금 중 일부는 정부보조금, 수혜금의 형태로 가계에 흘러가기도 한다. 이렇게 경제 내에서 생산된 소득은 가계, 기업, 정부 상호간에 순환된다.

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가계와 정부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한 지출활동을 한다. 가계는 임금, 배당, 이자 등 소득을 이용하여 자동차, 가구, 주택 등 내구재 또는 음식, 의복 등 비내구재에 대해 지출한다. 또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서비스를 구매하기도 한다. 정부는 세금을 이용하여 행정, 국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공공인프라 건설 및 유지에 지출한다.

이렇게 국민경제 활동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분배로, 분배에서 지출로, 지출에서 생산으로 이어지며 순환을 하게 된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에 대한 충분한 소비 수요가 있어야 하고, 가계와 정부가 상품 등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위한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국민경제의 순환은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는 생산, 분배, 지출 활동에 있어서 해외 부문의 역할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석유, 식량, 원자재 같은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그리고 선박과 같은 상품들은 우리 기업이 생산하였지만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것보다 외국에 수출하는 양이 더 많다. 외국에서 인력이나 자본이 유입되기도 하는데, 중소기업, 건설업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경영 등의 분야에 외국인력이 상당수 종사하고 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물론 직접투자의 형태로 외국자본이 유입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본의 유입규모는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 앞 페이지에 나온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시장에 관련된 내용과 연결해 가며 읽기 자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 이 읽기 자료에서 다른 내용이 지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반드시 미리 알아 두고 있어야 할 개념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 이 내용이 수능 국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그리고 국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한 번 정도는 읽고 이해를 해 두는 것이 이해도의 신장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효율적이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다. 국민경제의 순환이 어떤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다양한 경제 현상들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M E M O

3강

시뮬레이션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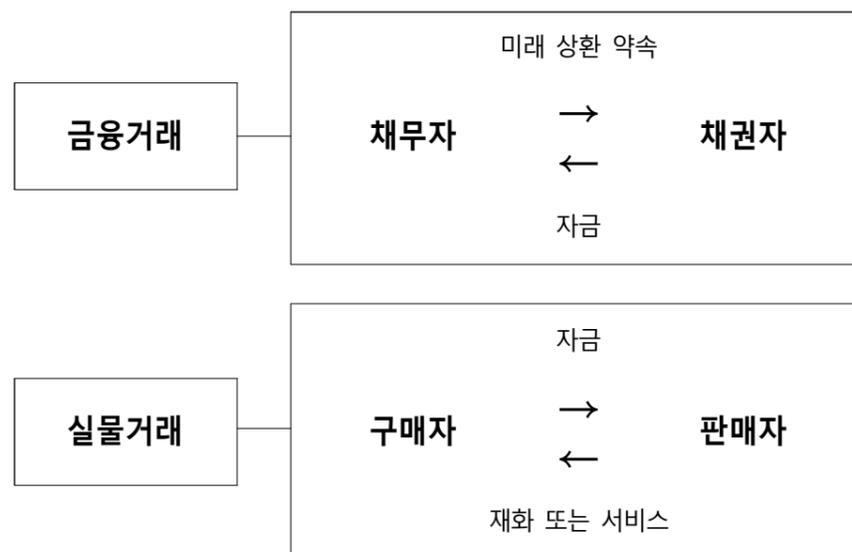
- 자금의 융통과 이자율 -

노력의 온도

▶ 들어가기 전에 - 개념 정리 & 읽기 자료

생산·분배·지출과 같은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 간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잘 작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화폐의 양이 충분하고 화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흐름도 원활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생산물의 규모도 크지만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금융시장도 잘 발달되어 있는 데 비해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생산성도 낮고 금융시장도 낙후되어 있다.

경제활동은 자금의 유통, 즉 금융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구입하고 인력을 고용하며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이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이러한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부족한 자금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발행을 통하여 조달해야 한다. 기업이 가계와 정부에 소득을 분배하고 가계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금융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경제발전 단계가 낮고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현금거래만으로도 거래가 완료될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거래나 지급·결제가 금융을 통하지 않으면 완료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금융이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물거래에서는 상품과 돈이 교환되지만 금융거래에서는 돈과 증권 또는 채무증서가 교환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예금주에게 통장을 내어 줍니다. 이와 같은 금융거래의 결과, 당사자 간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예로 든 예금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자산이고,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부채입니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큰 흑자 경제주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큰 적자 경제 주체도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주체 사이에, 즉 흑자 경제 주체와 적자 경제 주체 사이에 돈이 유통되는 것이 곧 금융입니다.

한국은행,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일정 기간 자금을 빌려 쓴 사람은 그 자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를 이자라 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고 한다.

금리의 변동은 경제 주체의 금융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가계는 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소비를 하거나 저축을 한다. 금리가 오르면 저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증가하므로, 금리 상승은 가계의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한편, 가계는 돈이 부족할 때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 빌린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로 인해 지급해야 할 이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금리 상승은 가계의 대출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금융감독원, 고등학교 생활금융

금융이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물거래에서는 상품과 돈이 교환되지만 금융거래에서는 돈과 증권 또는 채무증서가 교환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예금주에게 통장을 내어 줍니다. 이와 같은 금융거래의 결과, 당사자 간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예로 든 예금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자산이고,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부채입니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큰 흑자 경제주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큰 적자 경제 주체도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주체 사이에, 즉 흑자 경제 주체와 적자 경제 주체 사이에 돈이 유통되는 것이 곧 금융입니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의 가격인 금리도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돈을 빌려주려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먼저 자금의 수요는 주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의 투자에 의해 좌우됩니다. 즉 경기 전망이 좋아지면 이익 증가를 예상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한편 가계 소득이 적어지거나 소비가 늘어 가계가 공급하는 돈이 줄어들면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또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같은 금액의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실질 가치가 떨어지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어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밖에 금리는 차입자의 신용과 돈을 빌리는 기간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는데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이 클수록, 그리고 차입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은행,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금리의 변동은 가계 소비, 기업 투자 및 물가수준, 국가 간 자본이동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가계는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소비하거나 저축하는데, 이때 얼마나 소비하고 저축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금리이다. 금리가 오르면 저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증가하므로 가계는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저축을 증가시킨다. 반면 금리가 하락하면 미래 소비를 줄이고 현재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저축을 줄이게 된다. 주택,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을 위해 큰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가계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얼마나 대출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금리이다.

금리는 기업의 투자활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자금을 빌리는 입장에서 볼 때 금리는 자금조달의 비용이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에 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금리는 물가와도 영향을 주고 받는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을 위한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나 상품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위축으로 인해 경제의 전체적인 물품수요가 감소하여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개방경제 하에서 금리는 국가 간 자금흐름에도 영향을 준다. 국내 금리보다 외국 금리가 높을 경우, 국내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되거나 외국자금의 유입이 줄어든다. 반대로 국내 금리가 높을 경우에는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이 줄어들거나 외국자금의 국내유입이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금리는 가계소비, 기업투자, 물가 등 실물부문뿐만 아니라 국가 간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시장금리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 전체의 흐름을 안정화시킨다.

금융감독원, 대학생들을 위한 실용 금융

노력의 온도

-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금융을 '금전을 유통하는 일. 특히 이자를 붙여서 자금을 대차하는 일과 그 수급 관계를 이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래 관계 전반을 이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한테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게 된다.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자기가 그 돈을 쓸 수 있었다면 분명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다거나 어떠한 소비 행위를 함으로써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질 못했으니 그 기회비용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다. 이 기회비용에 따른 대가는 '이자'를 의미한다.
- 이러한 기본적 원리에 따라, 이 '이자' 혹은 '금리'라고 하는 녀석은 자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이것의 변동에 따라 각각의 경제 현상의 양상은 판이해진다.
- 금리의 움직임은 투자, 소비, 물가 등 실물 부문에 다양하면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금리의 고저에 따라 가계는 소비를 할지, 저축을 할지를 달리 결정하게 되며, 기업 또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인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투자를 늘릴지 줄일지를 달리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개인도 저축을 많이 하게 되니 상품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물가가 일반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물가가 대체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물론, 이자가 상품의 생산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경우 제품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더불어, 금리의 변동은 국가 간 자본 이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가 외국의 금리보다 높아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운용하는 것이 본인 나라에서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국내에 자금을 유입하게 되지만, 반대로 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지게 되면 보다 높은 이익을 찾아 돈이 국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 금리가 이처럼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평가원에서는 금융 관련 지문을 출제할 때 금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문제를 틀리게끔 출제해 오고 있다. 또한, 단순히 금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넘어 이것이 다양한 경제 지표들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까지 '기본 상식'으로 알아 두어야 하는 것처럼 지문의 정보를 구성해 두고 있다. 따라서 기출을 분석하든, 연계 교재를 학습하든, 그에 앞서 이에 관한 정보들은 미리 정리를 해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 금리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어려우면, 기준 금리와 시중 금리의 관계만이라도 알아 뒤라!)
 - **기준 금리:**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내 물가, 경기 및 금융·외환시장 상황, 세계 경제의 흐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정책금리이다. 이러한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 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된다. 쉽게 말해서, 은행들의 은행인 한국은행이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매기는 금리가 바로 이 기준금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되면 시중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자 나름의 금리를 책정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의 금리가 오르게 되고,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내려가게 된다.
 - **시중 금리:** 금융시장의 사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금리로서 중앙은행 및 정부금융기관 이외의 민간금융기관이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민간금융기관 상호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콜 이율, 할인율 등을 의미한다.
 - **단리:**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10%의 금리로 은행에 2년간 예금한다고 했을 때 만기에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은 단리 방식으로 120만 원[100만원 × (1+0.1×2)]이 된다.
 - **복리:**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감안하여 계산하는 방법.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10%의 금리로 은행에 2년간 예금한다고 했을 때 만기에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은 복리 방식으로 121만 원[100만원 × (1+0.1)²]이 된다.
 - **명목금리:**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금리.
 - **실질금리:**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연 5%일 때, 물가상승률이 연 5%라고 하면 실질금리는 0인 결과가 초래된다.
 - **표면금리:** 겉으로 나타난 금리.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을 채권 표면에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 **실효금리:**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 표면금리가 동일하더라도 복리나 단리 등의 이자 계산방법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 등에 따라 실효금리는 달라지게 된다.

신용은 사람 간의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데, 금융거래에서 신용이란 장래의 어느 시점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신용이 좋다는 것은 빌린 돈을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용이 좋은 사람은 당장에 현금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돈을 빌려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거나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할 때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신용 정보를 조회하게 된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는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신용을 평가한다. 신용이 좋다면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커지고 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반대로 신용이 좋지 않다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적어지고 대출 금리도 높아지며, 심지어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고등학교 생활금융

만기가 3년인 채권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국고채, 한전채, 회사채(AA-), 사채(BBB-)의 순으로 높아집니다. 금융상품을 사려는 사람은 금융상품 발행자가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즉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낮으면 이러한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동일한데도 신용의 차이로 생기는 수익률의 격차를 위험할증률(risk premium)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위험 자산이므로 국고채 수익률은 다른 상품의 위험할증률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신용위험(credit risk) 또는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은 금융상품의 가격, 즉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기 1년짜리 채권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보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고채가 낮습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CD도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CP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한국은행,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 금리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에 있어 작용하는 개념이만큼, 돈을 갚지 못하게 될 가능성(지문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신용 위험이라든지, 지급 불능 위험이라든지... 하는 이름들 따위로 다양하게 불린다)에 따라 금리는 변동할 수밖에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이치 아니겠는가.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줬다면 그만큼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테니까.
-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될 만큼, 평가원에서도 이 관계, 원리에 대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기회가 오기만 하면 이를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 비중을 부여하고, 문제를 푸는 데에도 있어서도 이를 꼭 Key Point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문항을 설계 및 구성하는 것 아니겠는가. 2011학년도 수능 [44~46] 세트와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25] 세트를 풀어 보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이런 내용이 지문에 제시되기만 하면 어김없이 다들 어려움을 호소한다. 뜯어보면 당연한 말인데 말이다. 아무래도 애초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탑재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문 내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한꺼번에 복잡하게 작용하다 보니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다. 뭐가 됐든, 우리는 해당 내용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는 걸 배웠으니, 관련 정보가 제시되더라도 의연하게 지문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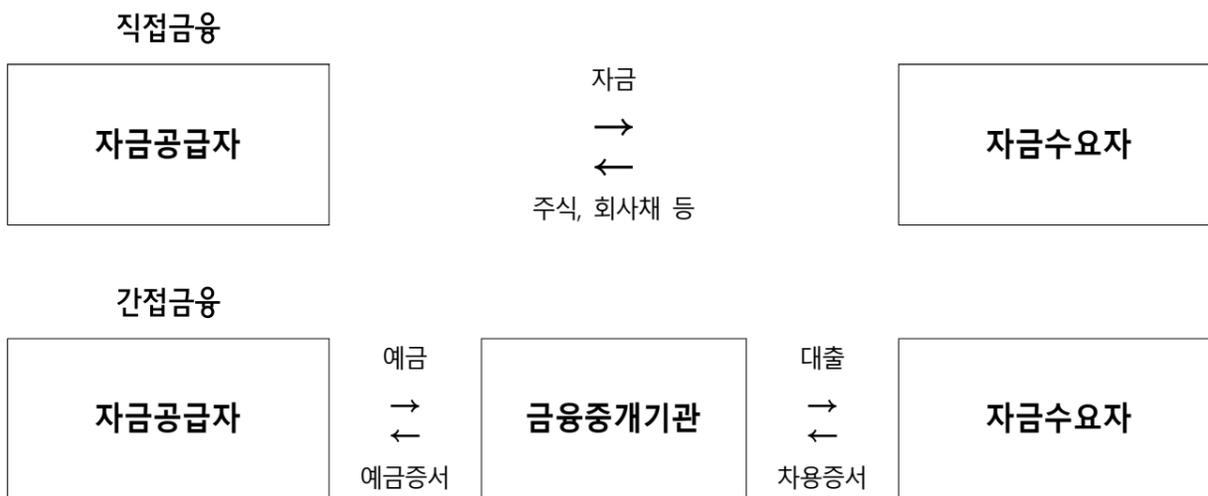
노력의 온도

농산물 시장에서는 농산물 생산자인 농부가 공급자가 되고 일반 소비자들이 수요자가 되며, 거래되는 상품은 쌀·콩·채소·과일과 같은 농산물이 다. 금융시장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상품이 있어야 한다. 금융시장이란 기업, 가계,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금융거래를 하는 곳이다.

금융시장은 금융거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된다.

직접금융은 기업과 같이 자금의 수요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자금의 공급자가 직접 매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금융시장에서 회사채나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회사채(채권)는 기업이 일정기간 후(만기)에 정해진 액면금액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를 말하며,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증권이다.

간접금융은 직접금융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의 금융중개기관이 개입하는 형태이다. 은행이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서 간접금융의 자금거래는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금의 공급단계로 자금공급자가 금융중개기관에 자금을 맡기고 금융회사는 자금공급자에게 예금증서 등을 교부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금의 수요단계로 금융중개기관이 자금을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차용증서를 교부받는 단계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 평가원에서는 금융 기관과 금융상품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문의 내용과 문항을 구성한다. 따라서 이들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미리 숙지해 놓는 것을 권장한다.

→ 금융 기관이란 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여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돕는 금융중개기관을 의미한다. 그들이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이 중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은, 은행의 종류와 기능 정도라 할 수 있겠다. 은행의 종류는 거래 대상과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중앙은행(한국은행)**과 **일반은행(KB, NH, 신한, 우리 등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경우, '발권은행'으로서 법화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해 지폐와 주화의 형태로 돈을 공급하는 역할(=본원통화)을 담당하고, 일반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준다거나, 일반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때 그중 일정 비율(=지급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게끔 하여 시중 은행의 지불능력을 보장하는 등 '은행의 은행' 역할을 맡기도 하며,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을 관리하고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운동을 하거나 지불준비율을 변경하는 등 통화금융정책을 집행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중앙은행은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해주는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행의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도록 하자.

반면, 일반은행의 경우, 저축자의 예금을 맡는 한편 그 돈을 대출 등으로 시중에 공급하여 이익을 얻는 상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된다. (실제로 예적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훨씬 높다! DDIBAL!!)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을 해주는 데에 사용한다. 이를 예금통화의 창출 혹은 신용창조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본원통화보다 몇 배 많은 통화량이 형성되게 된다.

→ 다만, 이러한 신용창조에 의해 통화량을 무한대로 늘려내기만 한다면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지불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너무 많아져서 그에 따른 문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예금 중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고,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변경하는 등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2020학년도 수능 [37~42]에서 BIS 비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해 놓은 부분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추가로, 다음 읽기 자료는 더 읽어 보면 좋다.

역사적으로 은행의 첫 장을 연 것은 금세공업자들이었다. 금을 스스로 보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금고를 가진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받았다. 사람들은 물건을 거래할 때 금보다 보관증만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보관증을 오늘날의 지폐나 수표처럼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금세공업자들은 금을 맡긴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와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써 준 보관증만큼의 금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보관된 금의 일정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 주며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금세공업자들은 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금을 맡기는 사람에게 사례를 했다. 금세공업자가 했던 일은 결국 오늘날의 은행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은행의 두 가지 기능을 알 수 있다. 첫째,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통해 주는 금융중개 기능이다. 은행은 금융중개 기능을 통해 금융 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조성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자금의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은행은 자금 수요자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안목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조성된 자금이 한층 더 건전하고 수익성 높은 곳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둘째, 화폐를 창출하는 예금창조 기능으로, 예금창조는 신용창조라고도 한다. 다시 금세공업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만일 금세공업자가 맡아 놓은 금 전체를 그냥 가지고만 있다면 그 경제의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금세공업자가 써 준 모든 보관증에 기록된 금의 합은 그가 맡아 놓은 금의 양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맡아 놓은 금의 일부만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금세공업자들이 맡아 놓은 금의 30%만 남겨 놓기로 결정했다면, 70%만큼의 금을 다른 사람이 빌려다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 이는 유통되는 금의 양, 즉 통화량이 그만큼 더 늘어난 것을 뜻한다. 만약 금을 대출 받은 사람이 그것을 다른 금세공업자에게 맡기고 보관증을 받는다면 통화량은 한층 더 늘어난다. 그 금세공업자가 다시 30%만 남겨 놓고 나머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통화량은 처음의 몇 배 크기로 늘어나게 되고, 금세공업자들이 맡아 두었다고 기록된 금의 양도 늘어나게 된다. 이는 새로운 예금이 만들어진 셈으로 예금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만들어진 예금은 누군가가 빌려서 생긴 빚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갚아야 할 빚도 그만큼 늘어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은행의 예금창조 기능은 결국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지급준비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면서 예금통화라는 화폐를 창출하게 되고, 대출 받은 사람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화폐 창출 과정이 이루어지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쓰이는 화폐의 양이 늘어 경제의 유동성은 증가하지만, 경제가 종전에 비해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2020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6~20] - 출전: 이준구, 「경제학원론」

은행에는 중앙은행과 일반은행, 특수은행이 있다. 이중, 중앙은행으로는 금융제도의 중심이 되는 한국은행이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가 사용하는 돈인 한국 은행권을 발행하고, 경제 상태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 곧 통화량을 조절한다.

일반은행의 종류에는 큰 도시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인 지점망을 형성하는 시중은행과 지방 위주로 영업하는 지방은행,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이 있다. 일반은행은 예금은행 또는 상업은행이라고도 하며, 예금을 주로 받고 그 돈을 빌려주어서 이익을 얻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된다.

특수은행은 정부가 소유한 은행으로서, 일반은행으로서는 수지가 맞지 않아 자금 공급이 어려운 경제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국가 주요 산업이나 기술 개발용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산업은행, 기업이 수출입 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이 이에 해당한다. 농업과 축산업 금융을 다루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 금융을 다루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도 특수은행에 포함된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제1금융권이라고 한다.(제4금융권은 안 된다.)

2009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26~29] - 출전: 한대의, 「경제 수첩」

노력의 온도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접하는 금리는 종류도 많고 그 구조도 복잡해 보인다.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다르고, 대출 금리라도 은행에 따라 다르고 빌리는 기간이나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금리가 결정되는 기초가 되는 정책 금리를 주목할 만하다. 정책 금리는 각국 중앙은행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이며, 기준 금리라고도 한다. 시중 은행은 정책 금리에 수수료와 이윤 등을 감안하여 금리를 책정하므로, 정책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시중 금리 역시 오르거나 내리는 전반적 변화가 생긴다.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다. 물가 상승률이 높다 판단되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부진하다 싶으면 금리를 내리는데, 결정된 금리는 다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든지, 금리를 내려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모두 정책 금리를 통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중앙은행의 의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2015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20~23] - 출전: 정대영, 「동전에는 옆면도 있다」

금리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자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예금하더라도 금리의 방식, 즉 단리인지 복리인지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친 금액에 이자가 붙는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을 연 5% 금리로 2년간 예금하면 단리 이자는 매년 50만 원이다. 하지만 복리의 경우 첫해의 이자는 50만 원이나, 다음 해는 첫해의 이자가 포함된 1,050만 원에 5%의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는 52만 5천 원이 되는 것이다. 즉 금리가 같다면, 원금이 커질수록 또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리와 복리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커진다.

또한 금리로 인한 실제 수익률을 판단할 때에는 물가 변동률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물가 변동률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를 명목 금리라 하고,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명목 금리에 물가 변동률을 뺀 금리를 실질 금리라 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100만 원을 연 10% 금리로 예금한다면 1년 뒤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합계는 110만 원이 된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10%이면 원리금합계의 가치와 1년 전의 원금의 가치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철수의 명목 금리는 10%이지만 실질 금리는 0%인 것이다.

금리는 예금자뿐 아니라 금융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도 중요하다. 돈을 빌리면 대출 이자를 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오른다. 따라서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를 따져봐야 한다. 고정 금리는 대출 기간에 금리가 변하지 않지만, 변동 금리는 적절한 금리 조정을 통해 금리가 계속 변한다. 금리의 조정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일부 금융 기관은 자체적으로 산출한 자금 조달 비용에 따라 변동 금리를 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 기관들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 금리를 반영하여 금리를 책정한다.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매달 인위적으로 결정하는데, 경기 과열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으면 기준 금리를 올려 경기를 안정시킨다. 또한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면 기준 금리를 낮추어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 기준 금리가 변하게 되면 금융 기관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변동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의 이자 부담은 커지거나 작아진다.

2017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20~23] - 출전: 그레고리 맨큐, 「맨큐의 경제학」 등

M E M O

노력의 온도

저축한 돈을 미래의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투자는 넓게 예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산가치가 변동할 수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쓰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금융산업이 발달하면서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 즉 금융상품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금액으로 출발하더라도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운용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재산 늘리기는 소득 중 얼마를 저축하는가와 저축한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수익률과 위험, 금융상품의 종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중략)

기본적으로 재산 늘리기를 위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일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작은 반면 이자율이 높지 않아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원금 손실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투자에 있어 '위험이 크면 수익이 높다(high risk, high return)'는 기본 원리를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말만 믿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무턱대고 주식을 샀다가 어렵게 모은 소중한 돈을 잃게 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위험이 높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 폭은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로, 하루에만 최대 46.2%의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성격이 다른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식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약 150만 명이고, 은행 대출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까지 더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투자가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식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경기 상황, 투자하려는 회사의 영업실적과 향후 성장 가능성, 경영자의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이처럼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은행,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저축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모으는 행위인 투자에는 항상 불확실성의 위험이 뒤따른다. 투자의 위험은 근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데에서 비롯되는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의 주식, 부동산 등의 경기 전망도 빗나가는 경우가 있다. 섣불리 투자에 뛰어들면 자신이 소중한게 모은 자산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자산 관리의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투자 상품은 수익성이 높으면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높으면 수익성이 낮다. 'High Risk, High Return'은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금융 자산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투자 격언이다. 예금은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대신 수익성은 낮다. 주식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예금에 비해 안전성과 유동성이 낮다.

금융감독원, 고등학교 생활금융

우리는 실생활에서 리스크(risk)라는 말을 자주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리스크란 불확실성에 노출(exposure to uncertainty)된 정도를 의미하며 부정적 상황 외에 긍정적 가능성도 내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의 경우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을 가리켜 환리스크가 있다고 하고, 이 기업은 이후 환율이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유리하고 하락하면 불리해진다.

확정된 수익률이 보장되는 저축과 달리, 투자의 경우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수반된다.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투자 결과의 변동 폭이 크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클수록 기대수익률도 높다. 이런 투자의 특성을 'high risk high return(고수익 고위험)'이라고 한다. 기대수익률(expected return)이란 미래에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을 의미하므로, 실제 투자 결과로 발생하는 사후적 수익률, 즉 실현수익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리스크가 큰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되며, 기대수익률이 높아야만 투자자들이 기꺼이 리스크를 부담하여 투자를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안전한 저축 대신에 주식투자를 선택하는 투자자는 저축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주식투자를 선택한 것이지만, 주식투자 결과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결과적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며, 그중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를 투자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리스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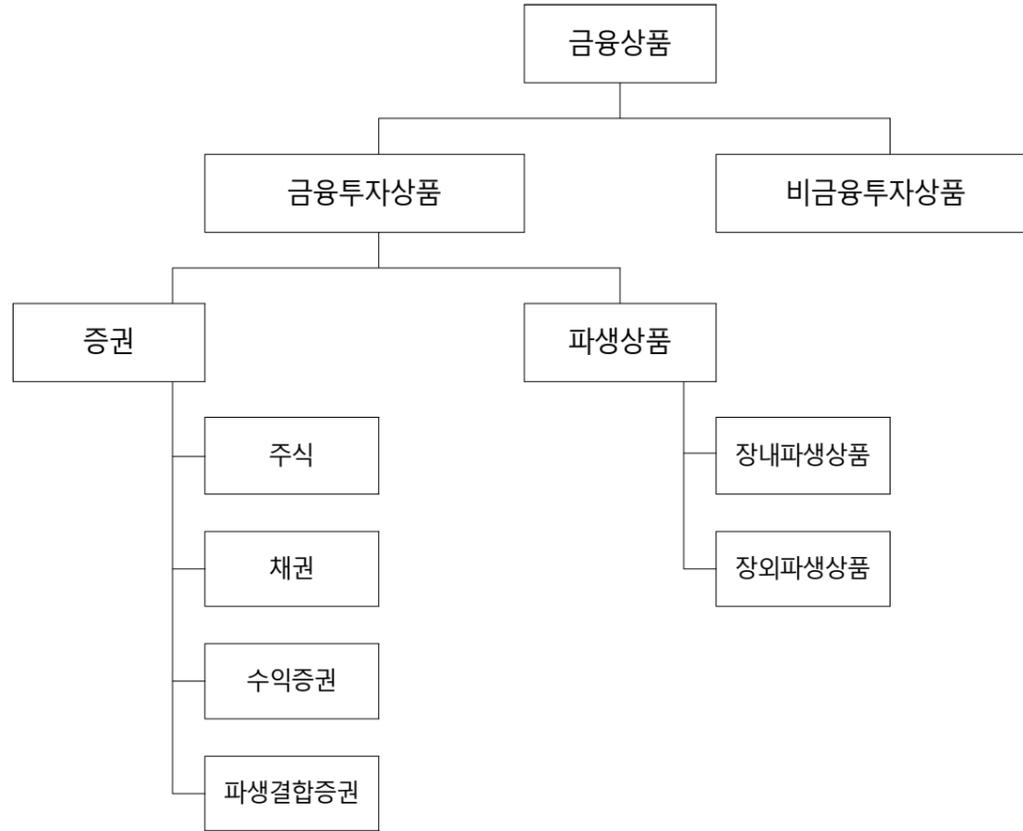
보통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수익률을 무위험 수익률(risk-free rate of return)이라고 하고,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증가하는 기대수익률 부분을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이라고 한다.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값이다.

그리고 투자자는 각자의 투자목적과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리스크를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고등학교 생활금융

-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요소시장에서 임금, 지대, 이자가 거래되는 것처럼,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상품이 거래된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에는 자산의 증식, 즉 저축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저축한 돈을 미래의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
- 투자에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위험이 수반된다. 위험이 크다는 것은 불확실성에 노출된 확률이 높다는 의미로, 투자 결과의 변동 폭이 크다는 말과 같다. 위험이 클수록 미래에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인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더 큰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신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와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
- 평가원이 금융상품에 관한 지문을 출제할 때,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정말 집요할 정도로 깊이 있게 물어보니, 부디 그와 같은 내용이 제시되면 이러한 관계를 먼저 생각한 다음 지문에 주어진 정보들을 정리할 수 있길 바란다.

노력의 온도



→ 금융상품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단순히 국어 지문 읽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 잘 알아두자.)

(이걸 모르고 성인이 되면, 이들에 대해 직접 경험해 보고 알게 되는데, 그걸 별로 추천하진 않는다 ^^;;)

- **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 중 투자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
- **비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 중 투자한 원금의 손실이 되지 않는 상품들. 예금상품, 대부분의 보험상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증권(★):** 원금손실을 초과하는 추가 손실 가능성이 없는 투자상품을 의미한다. (+ 넓은 의미에서 증권은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하여 만들어진 문서 따위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그 자체가 재산권 혹은 재산적 이익을 받을 자격을 나타낸다. 이에겐 채권, 주식, 예금증서, 어음, 수표, 은행권 따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파생상품(★):** 기초 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서 원금손실을 초과하는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을 의미한다. 선물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은 불확실한 미래 가격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는 헤지(hedge)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거나,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변동을 예상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적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 **요구불예금:**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지불해야 하는 예금. 개인이 많이 이용하는 보통예금 따위가 이에 해당함.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맡긴 돈을 언제 찾아갈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돈을 기업에 장기간 대출해 준다든지 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곤란해 낮은 이자를 주게 된다.
- **저축성예금:** 이자 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예금. 일정 기간을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정기적금이나 금리를 미리 정하여 목돈을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맡기는 정기예금이 이에 해당된다.
- **주식(★):** 어떤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발행하는 일종의 소유 지분을 기록한 증서.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주주로서 배당 이익(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과 시세 차익(주식을 매수한 이후 가격이 상승한 시점에 매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주는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출자한 자본액의 한도 내에서만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된다. 즉, 회사가 파산하여 갚아야 할 부채가 주주 지분 이상이 되더라도, 주주는 지분가치를 초과한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채권(★):** 채권이란 기업과 정부, 금융기관 등이 자금을 자금공급자로부터 직접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일종이다.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 증서를 소유한 사람에게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서 차용증과 같다. 채권에는 빌린 자금을 갚는 시기, 즉 만기와 만기가 되기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율(금리), 만기일에 지급되는 금액 등이 적혀 있다. 만기일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표면이자(coupon rate), 만기일에 지급될 금액은 액면가(face value)라고 한다. 예를 들어 만기가 3년이며 100만 원이라고 쓰여 있고 1년 단위로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의 소유자에게 매년 10만 원씩 3년간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게 된다. 채권은 산 사람이 그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고 만기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팔 수도 있습니다. 즉, 채권을 보유하면 발행 기관에서 약속한 이자 이외에도 이를 되팔아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은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예금보험공사·토지공사·한국전력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등으로 구분된다.

- **선물:** 기초가 되는 금융상품을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서 특정한 가격으로 사고팔기로 미리 약속하는 거래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3개월 후에 수출대금으로 달러를 받을 계획인데 환율이 변동하는 데서 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과 1달러당 1,200원인 현재 환율에 팔기로 계약을 받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Present가 아니다. 이때의 선물은 Futures라고 한다.
- **옵션(★):** 미래의 일정한 시점 또는 기간 동안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주식, 채권, 환율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앞서 말한 선물과 차이가 있다.
- **보험(★):** 불의의 사고나 재난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많은 사람의 분담금을 모아서 공동 준비재산을 마련하여 불행에 당한 사람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처리가 이루어진다. 보험에는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다. 생명보험은 질병, 사고, 장애, 사망 등으로 개인이 소득상실 위험에 처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며, 손해보험은 화재, 도난, 사고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소득수준과 자신이 처해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보험상품은 장기간 위험을 담보하므로 중도에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통상적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 별표 친 것들 위주로 보자!

- 채권의 경우, 2011학년도 수능 [44~46] 세트와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25] 세트를 읽고, 엔간하면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아예 집어넣어 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채권은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출제자가 가장 사랑하는 소재 1순위이다. 따로 찾아볼 내용이라면, 채권의 가격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한 번 이해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2011학년도 수능 지문에서 다른 내용이니 따로 찾아볼 필요는 사실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깊게 이해해 놓으면 수능을 대비하는 데에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나름 도움이 될 것이다.
- 보험의 경우, 2013학년도 수능 [39~42] 세트와 2017학년도 수능 [37~42] 세트를 두어 번 풀어 보고, 관련 소재가 출제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문이 구성되고 문제가 출제될지 대략 감만 잡으면 되겠다. 장담까진 할 수 없겠지만, 보험 관련 지문이 출제된다면 보험상품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풀어놓기보다는 어떤 외적인 소재와 엮어서 출제를 하지 않을까 싶다.
-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006학년도 수능 [52~55] 이후로 출제된 적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출제가 이루어진다면 무조건 헬 게이트가 열리리라는 것은 내 장담할 수 있다. 배경지식 없이 읽으면 아주 험난한 난도로 지문이 구성될 것이다. 만약 해당 소재를 가지고 지문을 출제한다면 선물과 옵션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차이점을 파악하라는 식으로 지문을 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위에 제시된 설명 정도만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면 콜 옵션과 풋 옵션 정도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이건 연계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한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할 수는 없겠다. 궁금하면 인터넷에 개별적으로 찾아보도록 하자.
- 평가원에서 주식 관련 지문은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솔직히 좀 신기할 정도이다. 너무 민감한 소재라서 내지 않은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널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이야기하진 못하겠다. 30년 넘게 안 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연계 교재에서 꾸준히 매번 등장하는 만큼, 언제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 내용이라 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두도록 하자. 그래야 나중에 골치가 아프지 않을 것이다.

M E M O

4강

시뮬레이션 ③

- 경기변동과 경제안정화정책 -

노력의 온도

▶ 들어가기 전에 - 개념 정리 & 읽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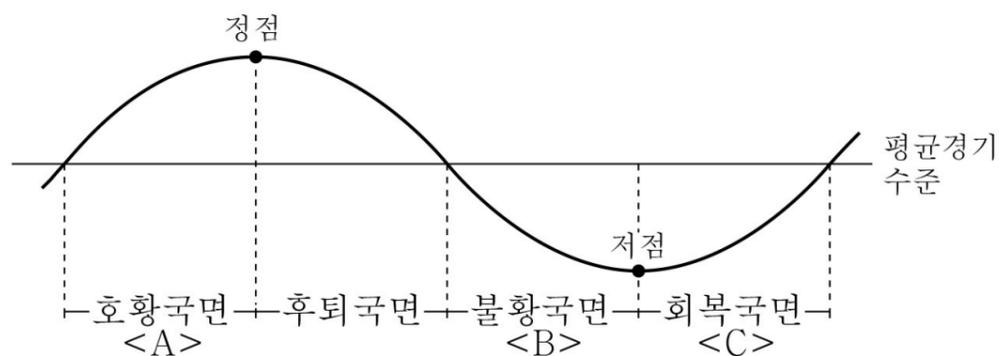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기가 좋다거나 나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보통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거나 수익성이 나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말합니다. 개인들은 소득이 높아지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집의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개별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경기는 각자 처한 여건과 판단 기준에 따라 서로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개별주체들의 경제활동을 가지고 여러 부문과 다양한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경기를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왜 경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것은 경기 판단과 예측이 어떤 경제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로서 그 정확성 여부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성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가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의 구입 시기를 결정하거나 기업이 수요를 전망하여 이에 적합한 생산과 시설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여건에 알맞은 경제정책을 운용하기 위하여 경기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예측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기란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부문 활동과 돈의 양, 금리, 주가, 환율 등의 금융부문 활동, 그리고 수출입 등 국외부문 활동을 망라하는 여러 가지 경제변수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판단 과정은 사람으로 치면 종합건강진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유책을 마련하듯이 경기판단을 통해 현 경제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는 것입니다. 경기가 장기적인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반복하여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경기변동 또는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라고 부릅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하면 경기가 상승하여 정점에 이르게 되고 이후 경제활동이 부진해지면 경기가 하강하여 저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변동은 민간기업의 투자지출을 비롯한 수요충격, 통화량 변동, 불안전 정보에 의한 기대, 기술이나 생산성의 변동 등 경제 내의 여러 가지 실물 및 화폐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현실 경제에서는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기의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또는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합니다. 경기의 순환과정은 보통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상승국면과 정점에서 저점까지의 하강국면의 2국면으로 나누는데 이를 다시 상승국면은 회복기와 확장기로, 하강국면은 후퇴기와 수축기로 나누어 4국면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기추세를 기준으로 하여 윗부분 즉 경기정점을 전후한 기간을 호경기로, 아랫부분 즉 경기저점을 전후한 기간을 불경기 또는 침체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 경기변동이란 경기가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반복하여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순환은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 회복기의 네 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 호황기에는 투자와 소비뿐만 아니라 고용과 소득이 상승한다. 은행대출이 증가하고 주식 시장도 활기를 띤다. 후퇴기는 호황 때 확대되었던 모든 경제활동이 주춤하는데, 소비, 투자, 고용, 소득 등이 모두 감소하기에 이른다. 불황기 때는 소비와 투자가 더욱 침체되고 고용과 소득도 크게 줄어든다. 주가도 크게 하락하게 된다. 그러다가 회복기에 이르게 되면, 다시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고용이 증가하게 된다. 고용이 증가하게 되었으니 소득 증가가 이루어지고, 이는 총수요 증가를 불러오며 경제는 활기를 띠게 되는 것이다.

현실경제에서는 물가불안이나 실업과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충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지나친 경기변동을 그냥 놓아두면 경제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물가가 불안해지고, 불황일 때는 실직자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경제불안을 경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 3저(低) 호황에 따른 경기과열로 물가가 급등하였으며,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에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은 경기 부진, 고용 감소 등의 경제불안을 야기하였습니다.

물가가 장기간 상승하거나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등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국민은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써서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이라고 합니다. 경제안정화정책의 수행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로 굳어지게 된 계기는 1930년대 세계경제가 혹독한 공황을 겪고 나서부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시장이 경제 불안정을 자율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은행,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 우리 몸에서 혈액의 순환이 이루어지듯, 경기가 순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불가피한 경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변동의 폭과 깊이가 과하게 크다면, 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겠나? 과도한 고혈압(나), 과도한 저혈압 상태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자. 그 사람들이 건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또한 마찬가지다. 경기변동의 진폭이 과하게 클 경우, 국민경제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 경기가 과열될 경우, 인플레이션(=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물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임금은 완만하게 짙짙 오르면, 이거 뭐 어디 살맛이 나겠나?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투기가 성행한다든지, 수출이 감소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단적인 예로 실질소득이 감소해 민생경제가 위기에 빠진다는 것 자체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경기가 침체될 경우, 반대로 디플레이션(=통화량의 축소에 의해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물가가 떨어지니까 살맛이 나지 않겠냐고? 과도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실업률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수요가 떨어져서 상품이 안 팔리는 상태에서, 기업이 생산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 당연히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장기간 유지되면 빈곤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살율이 급증(더 높아질 데가 있나 싶긴 하지만..)한다든가, 아니면 타살율이 증가한다든가(ππ)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생산능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 경기변동이 필연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한쪽을 해결하면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변동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게 하거나, 이 두 문제를 동시에 모두 해결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정부는 경기변동의 진폭을 최대한 작게 함으로써 최대한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국민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경제안정화정책은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구분된다. 통화정책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비교적 간접적인 성격의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직접 재정지출이나 세금의 조정 등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성격을 지닌다.
- 세율과 지출 수준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재정정책과 달리, 통화정책은 돈의 흐름을 관리함으로써 경제가 안정화되게끔 만드니 지문 내용을 구성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통화정책이 훨씬 더 매력적인 소재로 느껴질 수 있겠다.
-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통화정책과 관련된 지문은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후로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왔으나, 재정정책을 직접적으로 다룬 지문은 평가원 주관 시험에서 아직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다.
- 따라서 수능 국어 시험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문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중요한 소재, 배경지식을 정리하려고 한다면, 효율이 중요하니 통화정책에 관한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재정정책에 관한 내용은 뒤에 제시될 읽기 자료나 지문 세트를 풀면서 간단하게 이해만 해 두도록 하자.
- 그 외로 출제될 만한 거리라고 한다면, 실업이나 물가와 같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지문을 구성해 놓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뭘 미리 정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문 내용을 충실히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간 기출이 된 적이 없으니 무작정 그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단 스탠스로는 절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노력의 온도

중앙은행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돈(통화)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경제활동에 있어 필요한 돈보다 너무 많은 돈이 공급되거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경기과열과 이에 따른 물가불안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돈이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거나 금리가 너무 높으면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의 과열이나 침체 없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경제성장, 국제수지 균형, 고용 및 금융안정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경제 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없고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균형 등 다른 목표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활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은 직접조절수단과 간접조절수단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조절수단은 시장원리보다 정책당국의 행정적 권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은행 여수신금리 규제, 대출규모 통제 등이 있습니다. 간접조절수단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하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변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s),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간접조절수단을 주로 이용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이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을 금융시장(공개시장)에서 사거나 팔아 단기 시장금리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사들이면 국공채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한국은행이 시중의 돈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는 금융시장에 국공채를 매각하여 국공채를 매입한 금융기관이 현금이나 은행예금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개시장운영은 1830년대에 영국의 영란은행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1913년 연방준비제도의 설립과 함께 공개시장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하였으며 미국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대다수 국가에서도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가 진전되고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공개시장운영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주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공개시장운영이 핵심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여수신제도 또는 지급준비제도와 달리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금융시장에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원리에 부합되는 정책수단인 데다 그 효과가 금융시장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파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개시장운영은 실시 시기나 조작 규모 및 조건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어 신속적인 정책운영이 가능합니다.

여수신제도는 일반은행이 기업과 개인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부족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 제도는 중앙은행제도 초기에 은행이 기업에 할인해 준 어음을 다시 할인·매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재할인제도(再割引制度)라고도 합니다.

지급준비제도는 은행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 등에 대비하여 예금 및 은행발행 금융채 발행액의 일정 비율, 즉 지급준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예금 중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내리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고 시중의 돈은 늘어납니다. 지급준비율은 조금만 조정되더라도 경제 전체의 돈의 양이나 은행 경영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자주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급준비제도는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준비 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만으로도 강력한 통화량 조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 등으로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개시장운영이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지급준비제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시중 유동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에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알리는 공시효과(announcement effect)가 있기 때문에 지급준비제도는 여전히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통화정책은 어떤 경로를 거쳐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총수요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최종목표를 달성하게 될까요? 실제로 통화정책은 길고 복잡한 경로를 거쳐 실물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는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신용경로 등이 있습니다.

먼저 금리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조정하면 이에 대응하여 단기 및 장기시장금리, 여수신금리 등이 변화하고 이어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등의 변화를 거쳐 총수요와 물가상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추면 장단기시장금리와 여수신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남으로써 총수요가 증가하고 물가를 상승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산가격경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격을 변화시켜 총수요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개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개인의 부(富)가 늘어나 소비가 늘어날 여력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주가가 오르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커집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환율경로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이 국내금리를 변화시키고 다시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변동된 환율이 총수요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국내금리가 하락하면 원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외국통화(예 :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을 사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원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야 합니다. 이는 원화의 초과공급과 달러화의 초과수요를 가져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원화환율 상승). 원화환율의 상승은 달러화로 표시한 수출품 가격을 낮추는 반면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이에 따라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어나며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또한 환율 상승은 수입가격을 높여 국내물가를 오르게 합니다.

위의 세 가지 경로의 공통점은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을 통해 정책효과가 경제에 파급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비해 신용경로는 통화정책이 양적인 측면, 즉 은행대출 규모에 영향을 미쳐 정책효과가 실물경제에 전달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하락하여 경제주체의 대출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시중자금의 가용량이 늘어나 금융기관의 대출여력도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규모(신용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물가가 상승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성과 관련한 기대경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계기로 관심을 받는 위험선호경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의 구조 및 발달 정도 등에 따라 파급경로별로 걸리는 시간이나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오늘날 정부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과 같은 거시경제의 안정은 물론 소득불균형 개선,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통틀어 재정정책이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소득불균형 개선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은 제외하고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긴축적 또는 확장적 재정활동에 한하여 재정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노력의 온도

정부는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시켜 좀 더 빨리 균형을 찾아가도록 여러 가지 안정화 정책을 사용한다. 정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안정화 정책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다.

통화정책은 정부가 화폐 공급량이나 기준금리 등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경기가 불황에 빠져 있을 때, 정부가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낮아져 시중에 풍부한 자금이 공급되어 소비자들의 소비지출과 기업들의 투자지출이 늘어나면 총수요*에 영향을 주어 경제가 활성화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이나 조세징수액을 변화시킴으로써 총수요에 영향을 주려는 정책이다. 재정정책에는 경기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자동안정화장치와 정부의 의사결정과 국회의 동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재정정책이 있다.

이러한 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다소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이를 정책시차라고 한다. 정책시차는 내부시차와 외부시차로 구분된다. 내부시차는 정부가 경제에 발생한 문제를 인식하고 실제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외부시차는 시행된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끼쳐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재량적 재정정책의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세제도를 변경해야 할 때 입법과정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내부시차가 길다. 이에 비해 통화정책은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수립·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시차가 짧다. 또한 재량적 재정정책은 외부시차가 짧다. 예를 들어 경기 불황에 의해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정부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소비지출의 변화에 의해 총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 반면 통화정책은 정부가 이자율을 변화시켰다 하더라도 소비지출 및 투자지출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시차가 길다. 한편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의 상황에 따라 재정지출이나 조세 징수액이 자동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미리 재정제도 안에 마련된 재정정책이다. 따라서 재량적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외부시차가 짧을 뿐만 아니라, 재량적 재정정책과는 달리 내부시차가 없어 경제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자동안정화장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적소득세와 실업보험제도가 있다.

누진적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 금액에 따른 과세의 비율을 미리 정하여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제도이다. 경기가 활성화되어 국민소득이 늘어날 경우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우려가 있는데, 이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전반적 소득 증가와 더불어 세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소비지출의 억제로 이어져 경기가 심하게 과열되지 않도록 진정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한편 실업보험제도는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험금의 일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 경기 불황으로 실업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총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실업수당을 지급하여 총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억제하여 경기를 자동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경기가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들어서 있을 때, 일반적으로 총수요가 빠른 속도로 팽창해야만 짧은 기간 안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데, 오히려 자동안정화장치는 조세 징수액을 늘려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총수요: 한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소비와 투자를 위해 사려고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

* 추경예산: 예산을 집행하다 수입(세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길 때 고치는 예산.

2015학년도 4월 고3 B형 전국연합학력평가 [20~23] - 출전: 이준구, 「경제학 들어가기」

전통적으로 조세는 정부 수입을 얻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조세는 단순한 수입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이때 조세가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남겨 줌으로써 소비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경제 안정을 위해 거둬들이는 세금의 크기를 조정하다보면 정부재정에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 적자는 국채 발행을 통해 메워지는 것이 보통인데, 여러 해 동안 계속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국채의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채 발행액의 증가는 나중에 국가가 갚아야 할 채무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정 없이 국채를 찍어내기는 힘들다. 현대의 정부 중에는 재정 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너무 많은 국채가 발행된 나머지 골머리를 앓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2012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6~19] - 출전: 이준구, 「조세의 경제학」

5강

시뮬레이션 ④

- 환율과 경상수지 -

노력의 온도

▶ 들어가기 전에 - 개념 정리 & 읽기 자료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하여 우리 국민들도 외국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외국인들도 한국으로 많이 여행을 온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석유 등의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 등 상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과의 거래에서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로는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로 결제해야 한다.

국가 간 화폐의 교환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 화폐 1단위에 상응하는 원화 가격을 환율로 표시하는 자국통화표시법을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라는 것은 1달러를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이 1,000원이라는 것이고 유로(euro) 환율이 1,300원이라는 것은 1유로의 가격이 1,300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 돈을 외국 상품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환율은 다른 상품의 가격처럼 외국 돈 한 단위의 가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0달러를 환전하는 것, 즉 100달러를 구입하는 것은 개당 1,000원인 상품을 100개 구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환율을 표시할 때는 외국 돈 1단위당 원화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환율의 단위는 W/\$, W/€와 같은 것이 된다(예: 1,000원/달러, 1,300원/유로)

환율은 우리나라 원화와 다른 통화 간의 교환비율로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결정된다. 외화의 수요는 상품 및 서비스 수입, 자본유출, 내국인의 해외투자, 내국인의 해외여행 등에 의해 발생하고, 외화 공급은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자본유입, 외국인의 국내투자, 외국인의 국내여행 등에 의해 발생한다.

먼저 외화의 공급 측면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상승하면 금융자산의 수익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자본이 유입된다. 반대로 외국 금리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된다. 가령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빠져나가면 외화의 공급 감소로 인하여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반면 수출이 늘어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12년 이후 크게 늘어났는데,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 변동에 대한 원인을 외화의 수요 쪽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수입 증가, 국민들의 외국여행 증가 그리고 자본의 유출이 일어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화폐, 즉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환율 상승을 '원화 약세'라고 하고 환율 하락을 '원화 강세'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따라서 원화 가치 하락, 원화 약세, 원화 절하는 모두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면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외화의 가치는 올라간 것을 말한다. 외화의 입장에서 보면 외화 가치 상승과 환율 상승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환율 변화는 경제 주체들의 외화 수요 또는 공급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따라서 환율 상승은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이나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흔히 불경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통화 정책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국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환율정책을 사용하기도 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 시장에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우리 경제에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자재 및 부품 등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 기계류 가격도 올라서 투자 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다. 또한 가계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비용이 상승하고, 기업의 경우에도 외화표시 부채의 상환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

환율이 높거나 낮은 것 중 어느 것이 우리 경제에 더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환율 변동성이 높은 것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 때에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킨다. 예를 들면, 투기 세력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매수하면 환율은 크게 변동하게 된다. 이때 정책당국은 외환 보유액을 이용하여 외환시장을 진정시킨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외화 지급 불능 사태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교란 시 환율 안정을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환율이란 서로 다른 두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외국 화폐 1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원화로 환율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라면 1달러를 살 때 원화 1,000원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변화하면 환율이 상승한다고 말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1달러를 사기 위해 원화를 더 주어야 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하락한 것이다. 반면,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800원으로 변화하면 환율은 하락한 것이고 원화 가치는 상승한 것이다.

환율의 변동은 경제 주체의 금융 생활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환율이 상승하면 1달러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이 증가하므로 달러화 예금을 들어 둔 한국 사람은 이익을 본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 한국 사람의 경우에도 달러화로 표시된 미국 주식의 원화 환산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반면,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는 한국인 여행객의 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달러를 환전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여행 경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불리해진다.

(중략)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들로 파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금융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 즉 국내 금융 시장에 있던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금리를 인상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해 국내 주가와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와 기업 부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 증가는 내수 소비 위축의 요인이 되고, 기업의 투자 위축은 경기 하강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금융감독원, 고등학교 생활금융

환율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상품시장에서의 균형가격 결정 원리와 동일합니다. 즉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화폐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그 화폐의 가격이 오르고 그 수요가 작아지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공급 면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따라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바로 환율변동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각국의 경제활동 수준, 즉 경기의 좋고 나쁨이 외환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국내 경기가 좋아지면 수입이 증가되고 따라서 수입결제에 필요한 외환수요가 증가합니다. 반면 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수출이 증가하므로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자국통화가 강세로 되어 환율이 하락하고, 적자이면 그 반대로 상승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 벌어들이 달러가 사용한 달러보다 많게 되어 외환시장에 달러의 공급을 늘리므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환율은 1,200원/달러(1달러당 1,200원)에서 1,100원/달러(1달러당 1,100원)로 내려가게 됩니다.

(중략)

환율은 수출입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외국과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환율 변동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이제 환율 변동이 나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시다.

먼저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있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달러당 1,100원이면 채산성이 맞는 상품을 제조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달러당 1,200원이 되면 순이익이 전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수출하는 상품의 단가를 낮추어도 물량 증가 효과는 더 크므로 수출액(수출 물량×수출단가)이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 수입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달러표시 수입단가가 동일하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품 가격이 오르게 되어 국내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입품을 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경상수지는 개선됩니다.

또한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 원자재 및 부품의 값이 올라 국내 물가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물가수준이 내려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환율의 상승은 외채상환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한국은행,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노력의 온도

→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꼭, 환율과 경상수지와 관련된 내용은 늘 출제 가능성 1순위로 자리할 것이다. 사실 시험을 출제하는 입장에서 이만큼 매력적인 소재가 어디 있을까 싶다. 환율의 개념 자체만 놓고 봐도, 화폐가치랑 엮어서 물으면 다들 알아서 틀려주니 문제 내기가 얼마나 간편하겠나. 게다가 환율의 변동 하나로 금융거래의 작동 원리, 경기변동, 수요와 공급의 원리... 심지어는 통화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모두 엮어 물을 수 있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일거N득이고 일타N피이다.

→ 평가원에서 환율, 경상수지와 관련해 미리 알고 있길 요구하는 모든 지식들이 저 앞에 제시된 읽기 자료 안에 모두 담겨 있다. 좋게 말하면 저것만 이해하면 된다고 할 수 있겠고, 조금 가혹하게 이야기하면 저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2018학년도 수능 [27~32], 2022학년도 수능 [10~13]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환율과 경상수지에 관련된 내용은 세세한 부연 없이 그냥 던져다 놓으니, 이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미리 이해해 놓고 있도록 하자.

→ 사실 저것만 이해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여태껏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소재들에 대해서만 짚기보다, 앞으로 출제될 내용에 대해서까지 대비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겠나. 이를 위해 추가로 볼 만한 개념들을 정리해 두었으니, 앞 내용을 모두 이해한 다음, 이에 대해서까지 한 번 살펴는 봐놓도록 하자.

- **기축통화:**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가 이에 속한다.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있어 전쟁으로 국가의 존립이 문제시되지 않아야 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며, 고도로 발달한 외환시장과 금융·자본시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파운드화,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부른다.
- **고정환율제도:** 외환시세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킴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가장 전통적인 고정환율제도는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금본위제인데 동제도하에서 각국은 자국통화의 가치를 금에 고정시키고 금태환성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통화에 대한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고정환율제도는 금본위제처럼 절대수준으로 환율을 고정시키는 경우와 일정하게 정해 놓은 균형환율(중심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소폭의 범위 내에서만 환율의 변동을 허용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목표 범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후자의 경우를 이용한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대외거래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환율 변동에 의한 국제수지의 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외부문의 충격이 물가불안 등 국내경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단점도 있다. 우리나라 환율제도는 정부 수립 이후 고정환율제도로 출발하였으나,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계속 변천해 오다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변동 폭에 제한이 없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되었다.
- **변동환율제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 이론적으로 변동환율제도는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때 환율이 즉각적으로 조정되어 균형을 회복하므로 국제수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른 통화량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국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를 절충한 환율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을 유지하더라도 일부 환율의 변화를 인정하는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가나 기본적으로 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다.
- **국제수지:** 일정 기간동안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집계한 것이다. (건축학개론, 이두나가 아니다)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외환이 외국에 지급한 외환보다 많을 때는 국제수지가 흑자라고 하고,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외환이 외국에 지급한 외환보다 적을 때는 국제수지가 적자라고 한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상품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와 자본·금융 계정(국제 거래에서 자본의 이동을 통해 들어온 외환과 흘러나간 외환의 차이)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균형환율:** 한 국가의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해 대내외 부문의 균형 상태를 모두 달성하게 있게 하는 환율.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룰 때의 환율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균형환율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며, 국제수지가 1년 또는 2년 이상의 일정 기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환율 수준으로, 균형환율 수준에서 한 국가의 물가, 소비, 투자, 고용, 이자율 등 여러 시장의 균형 상태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생산성이나 교역조건 등 대내외적 균형에 변동이 생길 경우 균형환율도 함께 변하게 된다. 대내외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등 무역이나 외환상의 인위적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균형환율이라고 보지 않는다.
- **스무딩 오퍼레이션:** 변동환율제하에서의 환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수급에 의해 정해지지만 그런 가운데 중앙은행이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 또는 흑자의 불균형을 보이는 경우와 같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이 한 나라 경제의 대외균형을 이루는 환율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또는 균형환율로 되돌리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 할 수 있다.